

호주 동굴 벽화·테베 궁전...세계예술여행

세계예술지도

애런 로즌 지음, 신소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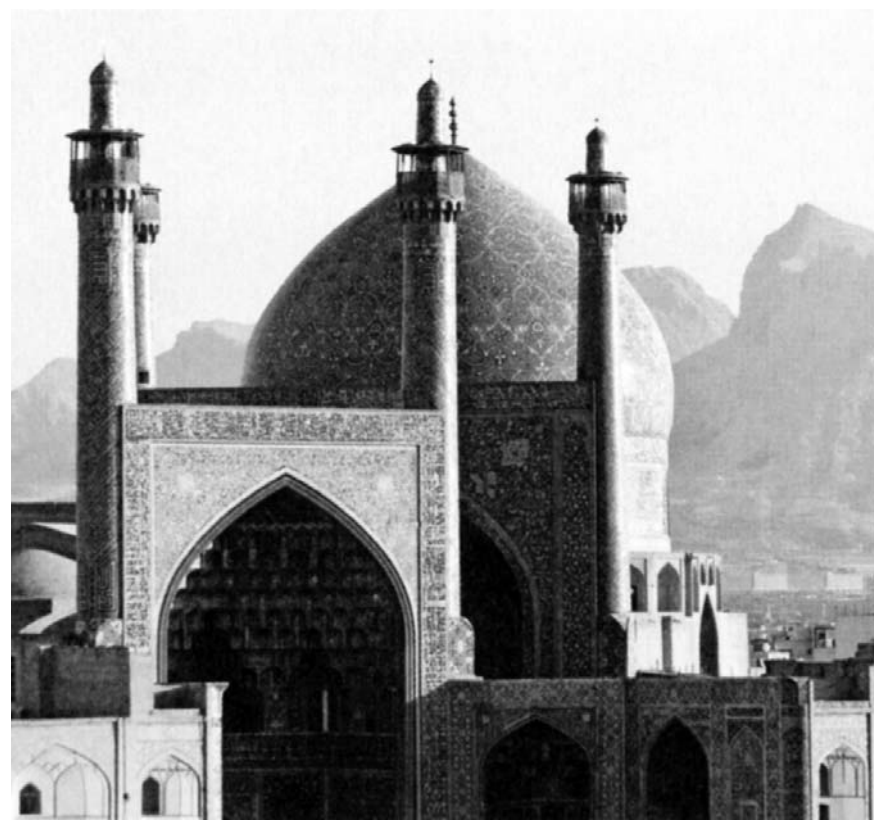
많은 이들의 여행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술이다. 다른 지방, 다른 나라를 방문해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공간이나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서다.

세계적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대영박물관 등은 관광객이 반드시 들러야 할 관광지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접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문제를 넘어선다. 여기에는 당대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이아가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등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키마운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애런 로즌이 '세계 예술 지도'를 펴냈다. 저자는 '유대인 미술 상상하기', '21세기의 미술과 종교'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발간한 전문가다.

저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세 예술사를 서술한다. 데 조점을 뒀다. 서구나 동북아 중심 또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된 많은 개론서들과 달리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도 다룬다. 특히 저자가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곳은 시공간을 초월한 30여 곳으로, 세계 각지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란 중앙부 이스파한의 '마스지드 이맘 모스크'.

〈북스토리 제공〉

예술 여행은 기원전 3만5000년 전의 오스트레일리아 나탈라 가반동 동굴 벽화에서 시작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이곳 동굴에서 기거하며 사냥을 하고 수렵을 했다. '바위 속의 구멍'이라는 뜻의 나탈라 가반동에는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파라오들이 세운 도시 '테베'는 이집트 종교와 문화의 핵심이었다. 기원전 1250년경에 세워진 도시에는 궁전과 사원이 많았다. 가장 인상적인 랜드마크를 남긴

이는 제19왕조 람세스 2세였는데 아홉 명의 이집트 왕들이 동일한 이름을 쓸 만큼 람세스는 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재원을 탕진한 나머지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기원이 됐던 도시 국가 아테네는 건축의 중심지였다. 특히 파르테논 신전이 주는 입체감은 이색적이다. 신전의 기단은 가운데 부분이 솟아 있고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교묘한 처리에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다.

바이킹의 무역향 '헤데비'는 요새였다. 헤데비는 바이킹 영토에서 가장 먼저 고유한 주화를 만들었다. 이 주화는 화폐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미술작품이기도 했다. 스웨덴의 바이킹 무덤에서 주화를 엮어 만든 목걸이가 발견돼 관심을 끌었다.

저자는 황금빛 수도 앙코르도 주목한다. 앙코르에서 출발한 크메르 왕국은 캄보디아를 정복하고 이어 태국, 라오스, 태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힌두교 사원 앙코르와트는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로 꼽힐 만큼 거대하다.

'황제가 사는 금단의 도시' 명나라 수도 북경도 조경한다. 자금성(紫禁城)이라는 명칭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는 뜻에서 유래한다. 도자기나 칠기 같은 당대 미술품은 호사의 극치를 이룬다.

저자는 하이테크의 중심 서울도 다룬다. 한류와 디자인의 나라로 규정된 서울은 소형 디지털기기부터 주요 건축 프로젝트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는 역동적인 도시다. 한강에 떠 있는 새빛동굴섬에 대해 공원과 영화관, 전시장까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평가한다.

이밖에 아프리카의 위대한 유적 짐바브웨,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도시 하이다과이도 소개돼 있다. 예술 작품뿐 아니라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도 설명하고 있어 예술과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예술지도는 따라가다 보면 각각의 공간에 숨어 있는 저마다의 사연과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만나게 된다.

〈북스토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약용·백석...시대를 아우르는 '평양냉면 사랑'

평양냉면

김남천, 백석, 최재영 외 지음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 무례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쟁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당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복한 맛방 찹찹 끓는 아르굴(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시인 백석이 '냉면'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요즘 인기있는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이다. 남북정상이 만나서 육류관 냉면을 먹은 후에는 아이 비둘기 대신 '평화의 상징'이 됐다. 냉면 마니아들에게 냉면이란 단연 평양냉면이다. 평양냉면(평양냉면의 중독성을 가리키는 말)도 등장했고 냉면 집 순례를 이어가는 이들도 많다.

'식탁 위의 문화 기행' 두번째 시리즈로 나온 '평양냉면'은 제목처럼 평양냉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평양냉면 예찬'은 김소저, 김남천, 차상찬, 백석 등이 1920~40년대 '개벽' 등 잡지에 실은 평양냉면에 대한 글을 담았다.

2부 '냉면의 역사를 보듬다'는 냉면이 등장하는 최초의 옛 기록부터 최근까지 글을 통해 냉면의 탄생과 면면히 이어져 오는 역사를 담았다. 다산 정약용의 글을 비롯해 '동국세시기', '조선요리제법', '별건곤', '매일신보' 등 역사서와 잡지뿐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냉면을 묘사한 2018년 영국 '가디언'의 기사까지 만날 수 있다.

3부 '냉면 문화이 되다'로 유종석의 '냉면 한그릇', 김랑운의 '냉면'. 이태준의

'유경식보'와 '유경의 종로', '북덕방 영감' 등 소설과 수필을 담았다. 특히 '별건곤' 기자 아광색이 쓴 '비밀 가정 탐방기-냉면 배달부가 되어'는 1920년대 즈음 평양과 경성에서 냉면이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음을 보여줘 흥미롭다. 중머리라 불린 냉면 배달부들이 한 손에 배달 음식이 담긴 큰 목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곡예 하듯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색적인 모습은 나혜석과 안서경의 드로잉으로 남아있다.

4부 '냉면 기행'에서는 김구 선생을 모시고 1948년 남북협상을 위한 평양 방문 길에 동행한 선우진의 기록 '38선을 넘어 찾은 평양냉면집', 2018년 오마이뉴스 심혜진 시민기자의 '눈물로 삼킨 유류관 냉면' 등 일제 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평양냉면의 이야기를 담았다.

〈기행·1만3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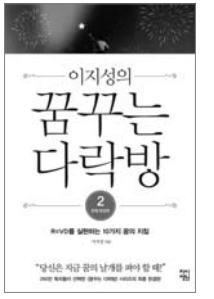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저널리즘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의 이슈를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신작. 강 교수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통해 사이버 세계의 등장 이후 페미니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살핀다. 이 책은 어쭙잡은 '끈대질'이나 남자들이 자주 여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맨스플레인'을 배격하면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 시공간적으로 전체 맥락의 그림을 보여주는 데 치중한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는 저자의 생각과 경향을 핵심 탄화하게 밝힘으로써 실감을 더하는 동시에 솔직한 자기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인물과사상사·1만7000원〉

▲묵성에서의 하루=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재의 두번째 시집 '묵성에서의 하루'는 일상을 미세하게 진동시키는, 마음의 한구석에서부터 전해져온 감정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계단에서 처음의 계단을 향해/기록되지 않은 사실에서/기록을 버린 기억 쪽으로/기록 없이는 잘 살고 있다' 책에 실린 시 '희고 차고 어두운 것'과 같이 경계를 지시하는 시어들을 빈번하게 등장시키며 이 효과를 증폭시킨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독도의 사계절 식물 리포트=생명이 움트기 힘든 홀로섬 독도.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식물들이 기록하기를 기다려 '독도의 사계절 식물 리포트'를 펴



낸 김철환 이학박사 등은 이 책의 부제처럼 '독도의 땅과 바다에서 만난 식물 122종'을 소개한다. 책을 통해서 이들 식물의 생김새와 구별방법, 분포, 이름의 유래, 쓰임새를 알 수 있다. 〈지오북·2만원〉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2=관매 250만부를 돌파한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가 출간 10주년을 맞아 완결판을 냈다. 저자 이지성은 '꿈꾸는 다락방' 시리즈를 통해 국내 최초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법칙을 'R=VD'라는 공식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두번째 시리즈에서는 VD 기법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새겨야 할 기본자세, 즉 꿈을 대하는 태도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차이정원·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빠, 내가 옆에 있을게요='방귀 만세', '난 형이니까'를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온 후쿠다 이와오 작가의 그림과 카즈 작가의 글이 만나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사고를 당한 뒤로 깊은 잠에 빠졌던 도시의 아빠는 예전과 다르다. 늘 자신을 돌봐 주던 아빠가 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토시는 "아빠, 내가 옆에 있을게요"라고 말한다.

〈도깨비달밤·1만2000원〉

▲잠이 오지 않는 밤=신에 작가 홍그림의 장작 그림책. 낮에 친구와 싸우고 돌아온 재민이는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때 방문을 열고 괴물들이 들어온다. 재민이는 괴물들을 데리고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발길을 나선다. 주인공 아이의 상상 속 괴물의 모습이 기발하며 평소 아이가 가지고 있던 화, 미움,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괴물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통쾌하게 그려진다.

〈창비·1만3000원〉

▲모기네 집=20년 넘게 아동문학 계간지 '시와 동화'를 발행하고 있는 강정규가 44편의 시들을 손글씨로 직접 써 내려가고 윤지가 그림을 채웠다. 작가는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단순하지만 예리하게,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길어 올린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솔직함이라는 사실을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